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 양천성당 주임 겸 제18양천지구장

## 위안을 주는 기도 생활

혹시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행기를 타고 드넓은 초원과 구름 위를 나는 두 주인공이 마주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그 배경에 들리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제2악장의 아름다운 선율!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음악 작품은 오늘의 복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항상 떠오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음악을 들으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오르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복잡한 속세를 떠나 잠시 고요와 평화를 찾아 산을 찾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그 평화로운 장면 말이죠.

예수님은 산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특히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셨습니다(예컨대, 마태 14,23; 24,3 등 참조). 보통은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셨지만, 오늘은 제자들과 함께 산을 찾으셨는데, 아마도 제자들에게 좋은 기도 체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은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하얗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두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기쁨과 위안을 얻었던 모양입니다. “주님, 저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 그냥 쭉—욱 지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베드로의 발언이 제자들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 분노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 같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기도 중에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믿음을 얻는 것이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받은 마음의 위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나 빨리 사라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의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체험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물이 없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어쩌다 만나게 되는 것처럼, 특별한 기도 체험 역시 아쉽지만 가끔만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비정기적’이고 짧은 체험만으로도 삶의 온갖 무게를 이겨낼 힘을 우리는 꼭 얻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시편 23,4) 아멘.



### 세곡동성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곡로21길 50

창4동성당 세곡동성당 위례성모승천성당



세곡동성당은 2017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주보는 예수성심이며 관할구역은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입니다. 현재 14개 구역 4623명의 신자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5월 부지 계약을 완료하여 2015년 3월 기공 미사를 봉헌하고 2017년 1월 교구장이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주례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